

美容針療法에 관한 研究

(治療對策을 中心으로)

慶熙大學校 漢醫學科 鍼灸學敎室

姜成吉 · 崔容泰

I. 緒 論

人類의 原始社會로부터 起源된 針灸療法은 長期에 걸쳐 反復되는 臨床實踐을 통해 貴중한 經驗이 蓄積어 刺灸法의 內容도 豊富하고 充實하게 發展되어 왔다. ¹²⁾

近年에 이르러 針具와 操作方法이 크게 改良되고 發展되었으며 東洋醫學의 穴位, 經絡學說, 臟象論 등의 基礎위에 創造啓發된 數 많은 새로운 療法이 點次로 廣範하고 豊富해 지면서 醫療面에 큰 役割을 하게 되었다. ¹³⁾ 特히 近來에 針術로 施圖 研究 되고 있는 禁煙, 禁酒, 色弱治療, 肥滿症治療 등의 針刺療法과 더불어 生活水準의 向上에 比例하여 美容에 대한 関心이 增加 됨에 따라 美容針療法은 새로운 療法으로써 대두되게 되었다.

美容針療法은 顔面·鼻部의 穴位 및 人體經絡上의 特定穴位에 刺針하여 刺戟을 주므로써 顔面의 病變狀態露呈이나 顔面皮膚의 趨皮 등을 治療 또는 預防하여 顔面의 健康美를 保持하도록 하는 針治療法이다.

즉 顔面의 皮膚色沈變化나 老化, 주름, 面垢, 여드름等 顔面에 發生되는 異常狀態를 治療하여 美容을 維持하도록 하는 化粧針療法인 것이다.

著者는 治療對策을 中心으로 美容針療法을 東洋醫學의 穴位 經絡學說 등의 基礎理論을 土台로 整理하여 臨床應用에 容易토록 하고 体系的으로 發展시키려는 意圖에서 本 研究를 施圖하였다.

II. 本 論

美容이란 健康한 容態와 아름다움을 表現 하는데 必要한 하나의 方法으로 健康한 美容을 維持 시킨다는 것은 日常生活中 相當히 重要한 課題이다.

特히 顔面 美容에 대한 現在의 治療對策이 皮膚科的, 成形外科의 手術方案, 內科의 治療方案 등으로 要約될 수 있겠으나 氣血循環을 調節하므로써 療病의 治療 또는 預防에 運用되고 있는 針刺療法은 顔面 美容에 대해서도 그 治療效果를 期待할 수 있다 하겠다.

오늘날 活用되고 있는 針刺方法中 美容에 效果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지는 刺針方案을 治療對策을 中心으로 要約 列挙하면 다음과 같다.

A. 選穴原則

1) 臟象論 經絡學說의 原理에 依한 選穴

顔面에 나타난 症候를 臟象論에 立脚하여 取穴하거나 또는 經絡의 循環을 應用하여 選穴하므로써 美容治療에 效果를 期待할 수 있다.

刺針時 手技法으로서의 刺戟量이나 質의 調節은 臨床上 必須의이며 適當한 刺戟은 더욱 治療效果를 높일 수 있다. (刺之要氣至而有効¹⁴⁾)

2) 面部의 氣血循環 및 面部疾患을 主治하는 體針穴位을 選穴

經絡에 位置한 穴位은 所屬經絡과의 共通性과 各穴位의 特殊性을 同時에 俱有하고 있으며 또한 經絡의 形成은 主로 主治性能을 基礎로 하고 있음을 考慮하면 氣血循環 및 面部疾患을 主治하는 穴位을 選穴하여 治療效果를 높일 수 있다.

3) 面部의 該當局所穴을 選穴

顔面視察時 自然光線下에서 施行하고 視察前 顔面의 本來色沈이나 形態를 그대로 維持토록 하여 顔面自體의 病變과 顔面에 出現하는 全身疾病의 病理反應과 區別하여 面部에 나타난 該當局所穴을 選穴토록 한다.

4) 面針·鼻針法等 分區針法을 活用한 穴位選穴

臟器疾患이 있을 境遇 該當臟器를 相応하는 面部 穴位, 또는 關聯이 되는 臟腑와 相応하는 穴位를 選穴 하므로서 治療效果를 期待할 수 있다.

5) 精神科의 側面에서의 穴位選法

刺針時 暗示, 催眠等으로 自信感을 注入시켜 刺針의 治療效果를 높이거나 取穴選法中 安靜, 鎮靜시키는 東洋醫學의 論理를 經絡說에서 應用하므로서 治療效果를 높일 수 있다.

B 配合原則

1) 面部穴位를 取하는 境遇 上下左右로 對稱하는 穴位를 配合할 수 있다.

2) 面鍼, 鼻鍼, 體鍼穴位를 選用 配合할 수 있다.

3) 少數의 美容治療要穴을 配合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며 面部穴位와 體針穴位를 配合하여 活用할 때는 먼저 體鍼을 行한 後 面部穴位를 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 上記한 穴位配合原則에 準하여 施行하되 顔面 Massage法 및 顔面指壓療法을 複合하여 併用하는 것이 效果를 增大 시킬 수 있다

Ⅲ. 考 察

疾病의 治療, 緩和, 予防 및 鎮痛의 目的으로 活用되고 있는 針刺療法은 東洋醫學의 基本 理論이며 重要한 構成成分인 經絡說을 基幹으로 하여 一定한 刺戟方法을 運用하므로서, 經絡·穴位를 通해 “調氣” “治神”의 作用을 일으켜 治療效果를 얻는 것이다. (用鍼之類, 在於調氣³⁾; 刺針之真必先 治神³⁾; 工之用鍼也 知氣所在 明于調氣, 用鍼之要 無忘其神⁴⁾; 凡刺之道 氣調而止⁵⁾)

東洋醫學上 經絡은 主幹과 分枝가 있어서 内部로는 臟腑에 連續되고, 外部로는 五官七竅(鼻, 目, 口, 唇, 舌, 耳), 四肢百骸에 分布되어 全身을 綱目과 같이 連絡하여 有機的 關係를 갖고 氣血을 運行시키면서 体内와 体表에 流注하고 있다. (夫十二經脉者 內屬於臟腑 外絡於夫支節⁶⁾ 經脉者 所以行血氣而 陰陽 濡筋骨 利關節者也⁷⁾)

이와 같이 針刺療法은 經絡說을 基幹으로 活用되는 만큼 美容을 爲한 針療法으로서도 應用될 수 있다.

특히 美容針療法은 顔面皮膚의 色澤變化에 依하여 疾病을 診察하는 觀形色의 診法을 基幹로 하

여 刺針治病 或은 予防對策으로 發展되고 있는 새로운 療法으로도 볼 수 있다.

面部는 諸陽之會로서 手之三陽經이 從手走至頭하고 足之六陽經之脉이 從頭走至足하여 手足六陽經之脉이 面部에서 俱合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面部病은 主로 胃와 有關係를 갖고 나타나고 있다고 說明되고 있다¹⁾.

즉 針刺療法이 經氣의 作用을 調節하여 皮膚의 老化 또는 色澤變化로 發生되는 顔面의 異常狀態를 積極인 原狀復元調整을 通하여 機能狀態가 亢進되면 正常狀態로 減弱시키고, 機能低下가 되면 正常狀態로 增強시켜 健康美의 美容效果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여진다.

鼻는 顔面의 正中에 있어 明堂이라고 하며, 全身氣血 및 心肺의 機能活動과 密接한 關係가 있으며, “心神”은 腦와 關係가 있는 것으로 理解되며 鼻部의 色澤變化에 依하여 疾病을 診察하는 古代의 診法을 基幹로 해서 發展한 鼻針法을 美容針療法에 活用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七情의 損傷으로 內臟의 病變을 誘發시키고 內臟의 病變이 心因性病變으로 助長될 수 있다는 東洋醫學의 精神科의 側面은 經絡 刺戟이 情緒變化를 均調시켜 精神素因의 作用을 誘發시키므로 治療效果를 期待할 수 있음과 催眠, 暗示 等과 더불어 行할 수 있는 針刺自体가 精神科의 側面에서의 心理的 誘導를 行하게 하므로서 美容治療에도 應用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百病生於氣也, 怒則氣上, 喜則氣緩, 悲則氣消, 恐則氣下, 寒則氣收, 炅則氣泄, 驚則氣亂, 勞則氣耗, 思則氣結⁸⁾ 神勞則 魂魄散 志意亂⁹⁾. 怒傷肝, 悲勝怒, 喜傷心, 恐勝喜, 思傷脾, 怒勝思, 憂傷肺, 喜勝憂, 恐傷腎, 思勝恐¹⁰⁾.)

顔面部穴位의 刺針操作方法是 顔面皮膚를 摘取하여 持針한 후 直刺·斜刺·橫刺法을 運用하며 留針術을 活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體針의 刺針手法은 一般의 毫針의 刺針方法을 挾하도록 한다. 또한 顔面に 凍傷, 外傷, 炎症 등이 있을 때는 炎症과 感染의 擴大를 防止하기 爲하여 慎重을 期하도록 하며 妊娠婦, 過度의 疲勞, 飢餓, 極度虛弱者, 甚한 行血患者 等에게는 美容針을 禁하도록 하는 것이 注意事項으로서 併行되어야 된다고 思料된다.

특히 美容鍼術後 顔面의 massage와 指壓療法

은 面部의 氣血循環을 增大시켜 顔面의 健康美를 保持할 수 있다고 보아진다.

IV. 結 論

美容針療法の 鍼刺治療對策은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 1) 臟象論 經絡學說의 原理에 依해 美容針治療穴을 選穴한다.
- 2) 顔面部의 氣血循環 및 面部疾患을 主治 하는 穴位를 選穴하여 施行한다.
- 3) 面部에 探索되는 反應點 또는 敏感點 等 該當局所穴을 選穴하여 活用한다.
- 4) 面針, 鼻針 等 分区針法을 活用한 穴位選穴을 応用한다.
- 5) 精神療法을 活用한 針刺方法을 応用한다.
- 6) 刺針方法과 Massage 方法 및 顔面指圧療法을

併用할 수 있다.

- 7) 刺戟의 量과 手技法도 美容針療法에 適用시켜야 한다.

〈參 考 文 獻〉

- 1) 張馬合註 : 黃帝內經, 東方書店, 台灣, 民國 49, 靈樞, 九針十二原, p. 6.
- 2) 上揭書, 靈樞, 刺節真邪, p. 432
- 3) 上揭書, 素問, 寶命全形論, p. 196
- 4) 上揭書, 靈樞, 官能, p. 416
- 5) 上揭書, 靈樞, 終始, p. 63
- 6) 上揭書, 靈樞, 海論, p. 245
- 7) 上揭書, 靈樞, 本肱, p. 295
- 8) 上揭書, 素問, 拳痛論, p. 276
- 9) 上揭書, 靈樞, 大惑論, p. 463
- 10) 上揭書, 素問, 陰陽應象大論, pp. 44~47
- 11) 許 浚 : 東醫寶鑑, 豐年社, 서울, 1966 . pp. 209 ~210
- 12) 崔容泰, 李秀鎬 : 精解鍼灸學, 杏林書院, 서울, 1974
- 13) 金賢濟外 3人編訳 : 最新針灸學, 成輔社, 서울, 1979. p. 345